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심심풀이 M3(Meta-Mind Meditation)’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이은수** · 장진영*** · 고시용****

원광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마음공부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심심풀이 M3(Meta Mind Meditation)’을 수행한 강사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의미는 개발 목적과 지향하는 바와 더불어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수행한 당사자의 경험 또한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의 역량과 역할에 관한 중요성과 질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만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강사의 체험을 직접 들어보고, 그들 내부의 이야기가 청소년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를 목적표집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가 인성교육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청소년과의 만남과 인성교육을 주제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자료를 범주화한 결과, 4개의 주제와 11개의 범주 및 29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와 인성교육을 위한 지도자 양성 및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종교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질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종교인으로서의 인성교육 경험의 의미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수행하는 강사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여 추후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의 지속적인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인성교육, 마음공부, 심심풀이 M3, 인성교육 프로그램, 종교 인성교육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61-A00008).

**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교수, 제1저자, 2eunsu@gmail.com

***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교수, jinsuwon@wku.ac.kr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 교신저자, kwgksy@wku.ac.kr

I. 서론

「인성교육진흥법」¹⁾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에 대하여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2014년 12월 29일 여·야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은 2015년 1월 20일에 제정되었고, 2015년 7월 9일에 시행령, 12월 10일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웅당 개인과 가정, 나아가서는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학교의 몫으로 여겨지던 인성교육의 책임이 법 제정 하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밝히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실현하는 모습은 종교가 지향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종교는 나와 타인을 존중하며 더불어 잘 살아가기를 염원하며 은혜·자비·사랑으로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종교계와 종교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성교육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실제 2010년대에 들어서 학교폭력, 자살, 왕따, 인터넷 중독 등 각종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 2월 23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범국가적인 근본적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7대 종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하였다.²⁾ 이에 대한 화답으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7대 종단이 각 종교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종교계와 협력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종교계가 교육계에 참여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종교의 교역자가 종교 내 시설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탈(脫)종교화 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반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3년 ‘심심풀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행되었고,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심심풀이 M3(Meta-Mind Meditation)’으로 업그레이드 개

1) 「인성교육진흥법」(시행 2015.7.21.)

2)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에의 종교계 동참 선언, 종교예식을 통한 학교폭력 경각심 고양을 위한 노력 다짐,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촉구, 일시 위주의 교육 풍토 개선과 인성교육 훈련 심화, 공영방송의 청소년 유해방송 자제 및 생명존중 고양 프로그램 제작 촉구 등이며, 성명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국민적 노력을 당부하였다. “종교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보도자료(2012.2.23.) 참조.

발³⁾되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에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2018년도 심심풀이 M3 프로그램의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⁴⁾, 교육내용이 유용하였는지에 대하여 88%, 지도인의 진행방법이 우수하였는지에 대하여 90.2%, 지도인의 태도가 친절하고 성실했는지에 대하여 94.6%,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91.3%가 긍정적으로 평가⁵⁾하고 있다. 참여자가 평가한 만족도에서 지도자의 태도가 성실하고 친절하며 진행방법이 우수하다는 높은 긍정적 평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우수성⁶⁾ 뿐 아니라 준비된 지도자의 안정된 운영이 심심풀이 M3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데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집단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구성안이 우수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자가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는 진행을 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구성안이 충실하지 못하면 집단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현재 ‘심심풀이 M3’의 지도자로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있는 강사는 대다수가 종교인으로서, 청소년과 마음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를 양성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수행한 강사의 경험 또한 중요하다. 특히 종교계의 인성교육이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제도와 환경에서 종교인이 수행하는 인성교육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종교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시도되지 않았던 질적 연구를 통하여 종교인의 인성교육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3)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과정은 박세훈·장진영·고시용, 「원불교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심심풀이 M3(Meta-Mind Meditation)’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50(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장진영·박세훈·고시용, 「마음공부의 사회적 확산 과정-심심풀이 M3(Meta-Mind Meditation)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2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을 참조할 것.

4)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매년 ‘심심풀이 M3’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 표준조사표에 의거 7점 척도로 만족도를 평가해 왔다. 7점 가운데 5점 이상이면 긍정적 평가로 간주한다.

5)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편, 제10회 마음인문학 국제학술대회 자료집(2019. 11)

6)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종합평가(평가기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심심풀이 M3 프로그램은 2014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평가에서 우수 및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2018년도에는 별도의 평가가 없었음).

II. 청소년 인성교육 ‘심심풀이 M3’ 프로그램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심심풀이 M3’는 12회기 구성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의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12회기로 구성하고 예·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이라는 인성교육 핵심 덕목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둘째, 체험 활동의 강화이다. 캘리그래피, 역할극, 무용동작치료 등을 활용한 회기 구성으로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다. 셋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정보 탐색과 재미 추구에 있어 영상물이 익숙한 청소년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해당 회기에 맞는 시청각 영상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회기에서 활용하도록 강사에게 제공한다.⁷⁾ 각 회기 주제와 목표 및 구성은 <표 1>⁸⁾과 같다.

<표 1> 심심풀이 M3 프로그램의 12회기 구성내용

회기	주 제	교육 목표	세부내용
1	心心풀이	•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 • 참여자들간 친밀감 형성 • 프로그램 참여동기 부여	1. 마음으로 만나는 마당 2. 소통 인터뷰 3. 심심풀이 M3 소개 4. 함께 지킬 약속 정하기
2	모든마음 백과사전	• 마음에 대한 기본적 이해 • 공동작업을 통해 소통과 협력 배우기	1. 마음은 ○○○ 이다(개인) 2.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조별) 3. 우리가 표현하는 마음(잡지 콜라주)
3	心心 인성어록1	• 인성교육 핵심 덕목에 대한 개념 이해 • 공동작업을 통해 소통과 협력 배우기	1. 인성단어 빙고 퍼즐 2. 인성교육 핵심 덕목 영상 시청 3. 캘리그래피 인성어록 만들기 step1~3
4	心心 인성어록2		3. 캘리그래피 인성어록 만들기 step4~5 4. 작품 전시 및 소개
5	心心 명상 1	• 명상과 공감 능력의 관계 이해 • 명상과 집중력의 관계 이해 • 명상에 대한 동기부여	1. 명상과 공감 능력 2. 명상과 집중력 3. 명상의 효과를 측정하다-뉴로피드백

7) 장진영·박세훈·고시용, 앞의 글, 279~281쪽 참조.

8) 「지도자용 지침서」, 『심심풀이 지도자연수 신규교육 자료집』,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희망숲 인성교육센터 제작, 2019, 8쪽.

6	心心 명상 2	• 단계별 명상수행법 체험 • 명상의 효과 체험	1. 긴장 이완훈련 2. 명상의 효과를 측정하다-뉴로피드백 3. 단계별 명상수행법 실습
7	Meta-Mind “E”	• 감정에 대한 이해 • 정서조절 방법 연습	1. 감정표현단어 빙고 2. 감정이란? 3. 감정표현 연습 4. 감정 스피드 퀴즈
8	心心 브레이크	• Meta-Mind와 마음 브레이크의 관계 이해 • 마음의 브레이크를 통한 갈등 상황 해결	1. 경계 년 누구냐? 2. 경계카드-STAR 공식 적용
9	마음극	• 마음극을 통해 인성덕목의 생활 활용 연습	1. 몸-맘 풀기 2. 인성카드를 활용한 마음극 3. 느낌 나누기
10	배려 스카프	• 표현의 매개체로서 몸의 움직임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 공감, 배려, 존중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	1. 그룹 공감대 형성 및 자기존중 2. 위밍업 3. 소통 스카프 4. 공감 스카프 5. 배려 스카프 6. 심심 토크
11	소통 동글이	• 표현의 매개체로서 몸의 움직임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 공감, 배려, 존중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	1. 그룹 공감대 형성 및 자기존중 2. 위밍업 3. 소통 동글이 4. 협동 동글이 5. 심심 토크
12	心心 원만이	• 생활 속에서 소통, 공감, 배려, 존중 등의 인성교육 덕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1.心心 원만이 소개 2.心心 원만이 만들기 3. 소감 나누기

Ⅲ. 연구방법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본 연구는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 방법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은 그룹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구자가 정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며(Morgan, 1996),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춘 조직적인 그룹 토의(Krueger, 1986)라고 할 수 있다.⁹⁾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토의 참가자들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결론에 도달하거나 제시되는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집단 토론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토론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참가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수준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단기간에 다량의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⁰⁾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평가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얻기 위한 토론에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교육과 활동, 청소년 인성교육 경험 및 발전방안을 탐색하기에 가장 적절한 분석 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2. 연구 참여자와 연구윤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인간 대상 연구윤리에 따라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심의와 승인¹¹⁾ 후 참여자 선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심심풀이 M3’ 기초 연수시간을 이수한 후 심심풀이 M3 『지도자용 지침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 5인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이 수행한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질적 연구의 연구 참여자 수는 연구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9) 박한나·주은선, 「여성상담자의 자기성찰을 위한 포커싱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주변정리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1) (한국여성심리학회, 2019), 4쪽 채인용.

10) 장서연·최선남, 「아동미술치료사의 치료과정 경험연구」, 『미술치료연구』 21 (한국미술치료학회, 2014), 4쪽.

11) 원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승인(WKIRB-201906-SB-050).

경우 4명 이상부터 12명 이하의 범위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의 구성원이 많은 그룹은 참여자들이 골고루 의견을 말할 기회가 적게 주어지므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명의 그룹으로 포커스 그룹을 형성하고 일반적인 90분 내외의 인터뷰보다 긴 120분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참여자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목적 표집에 의하여 연구 참여자 후보군에 해당하는 원불교 종교인 강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인터뷰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설명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자발적인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히고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5인(남 2, 여 3)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정 후 인터뷰 질문지를 사전 발송하여 참여자가 인터뷰 내용을 숙지하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자	성별	학력	연령	전체 인성교육 강사경력	‘심심풀이 M3’ 강사경력
참여자1	여	석사	40대 초반	10년	3년
참여자2	여	석사	40대 초반	7년	7년 ‘심심풀이’ 포함
참여자3	여	석사	40대 초반	7년	3년
참여자4	남	석사	30대 후반	4년	4년 ‘심심풀이’ 포함
참여자5	남	석사	30대 후반	3년	1년

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총 2회 2019년 7월과 9월에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는 각 120분간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연구 목적에 의해 준비된 질문을 충실하게 제시하되,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화 방식으로 연구에 적합한 내용이 토의되도록 이끌었다. 이를 위하여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동의서에서 연구 목적 및 방법, 인터뷰를 녹음하고 전사하여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따라서 인터뷰는 모두 녹음되었고 이를 전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사된 자료에서 모호한 부분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완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질문은 <표 3>과 같다.

〈표 3〉 인성교육 강사의 경험에 관한 반구조화된 질문

구분	구분	질문내용
도입질문	인적사항	• 자기소개 (연령, 인성교육 강사 활동 지역 및 경력, 참여 동기)
	‘심심풀이 M3’ 인성교육 활동 경험	• ‘심심풀이 M3’ 인성교육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심심풀이 M3’ 인성교육 활동 시 좋았던/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 ‘심심풀이 M3’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회기는 어떤 회기인가요?
주요질문		• ‘심심풀이 M3’ 인성교육 연수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심심풀이 M3’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어떠했나요? • ‘심심풀이 M3’를 통하여 청소년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청소년과 자신	• ‘심심풀이 M3’ 활동을 통하여 인성교육 강사 자신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청소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마무리 질문	인성교육 및 ‘심심풀이 M3’ 발전방안	• 청소년 인성교육에서 강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심심풀이 M3’ 교육이 잘 진행되기 위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4. 자료 분석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터뷰한 음성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축어록을 작성하였으며 축어록과 현장 노트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축어록을 통하여 개별 분석 과정을 가졌다. 이후 분석자들이 모여서 개별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논의하여 공통 의미를 지닌 자료들을 범주화하였다. 이 단계에서 유사한 범주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범주를 생성하는 작업을 반복적인 논의를 통하여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거쳐 연구 참여자 1인에게 확인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 보완하였다.

IV. 연구 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의 인성교육 경험과 활동 경험을 분석한 결과, 221개의 의미 단위에 대하여 4개의 주제, 11개의 범주, 29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각 주제는 ‘나는 어떻게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가 되었나: 청소년 인성교육 심심풀이 M3 강사’, ‘청소년을 만난 나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나: 인성교육에서 만난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나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나: 종교인이자 인성교육 강사’, ‘더 나은 인성교육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인성교육의 통한 소망’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심심풀이 M3’ 인성교육 강사 경험에 관한 분석 결과

주제	범주	하위범주
나는 어떻게 인성교육 강사가 되었나 : 청소년 인성교육 ‘심심풀이 M3’ 강사	청소년과의 만남에 대한 갈등	• 교화¹²⁾자로서 교화 대상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 현장에서 수동적으로 청소년과의 만남을 기다렸던 과거의 모습
	신뢰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주는 든든함	• 과거에는 개인적 관심과 역량으로 일반 청소년을 만나왔음 • 공신력 있는 타당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에 자신감이 생김 • 진행 매뉴얼과 교재 및 교구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 편리함
	지도자 연수를 통해 인성교육 강사로 훈련됨	• 기초연수를 통해서 인성교육의 목적과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해하게 됨 • 보수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실행을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 도움이 됨
	청소년을 만난 나는 어떤 경험을 하였나 : 인성교육에서 만난 청소년	• 내가 청소년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 • 보이는 것이 청소년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됨 • 의미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함 • 소리 없이 보고 듣고 변화하는 청소년을 발견함 • 청소년에게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전달하고픈 마음

12) 일반적으로 교화(敎化)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을 지닌다. 원불교에서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나는 어떤 경험을 하였나 : 종교인이자 인성교육 강사	‘교무 ¹³⁾ 님’이 아닌 인성교육 강사라는 새로운 정체성	• 익숙한 종교 환경이 아닌 낯선 환경과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 • 나의 경험과 태도를 객관화·일반화하려 노력함
	종교인으로서 신선한 자극과 활력이 되는 인성교육 강사 활동	• 또 다른 교화라는 소명과 기쁨 • 새로운 에너지와 성장의 기회가 됨 • 청소년과의 만남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소명	• 강사 역할 이전에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려는 노력 • 청소년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태도 • 인성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려 노력함
	청소년 인성교육 발전을 위한 바람	• 특정 회기에서 전문적인 기법 적용의 어려움을 느낌 • 인성교육 강사의 태도와 자질이 중요함 •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인성교육이 되기를 희망함
더 나은 인성교육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 인성교육을 통한 소망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역할 갈등과 교화 인식의 확장	•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활동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 교화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부담이 존재함 • 공간과 대상의 한계를 짓지 않고 교화를 하고 있다는 자각과 자부심
	종교인으로서 교화에 대한 고민과 염원	• 청소년 교화의 대안은 심심풀이 M3와 같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짐 • 여전히 남아있는 법회와 교도 증가만이 교화라는 현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종교가 드러나지 않아도 종교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본다면 종교인이라 여겨짐

는 교리를 사람에게 가르쳐서 부처의 인격을 갖추도록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교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교화자라 칭한다.

13) 교무(敎務)는 원불교 성직자 즉, 출가교역자에 대한 호칭이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교무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원불교 교단에서 교화·교육·자선 등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1. 나는 어떻게 인성교육 강사가 되었나: 청소년 인성교육 ‘심심풀이 M3’강사

1) 청소년과의 만남에 대한 갈증

청소년을 만나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데 기존에 있던 학생회도 문을 닫게 되는 과정이 1년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교화자로서의 절망감 있잖아요. - 참여자1 -

저희들도 교화 현장에 있어 보면 그냥 오는 아이들을 맞이하는 입장이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한정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것밖에 못하는데요. - 참여자2 -

교당¹⁴⁾이 위치적으로 주택가도 아니고 점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유지해가겠는데, 그래서 교화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략> 애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거는 그래도 우리 교당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가서, 좀 가까이서 올 아이들은 없지만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법회로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 참여자3 -

관심은 계속 있었고 심심풀이 M3는 아니더라도 (중학교에서) 마음공부 (진행)을 한 2년간 했었어요. 그때 그런 기억이 좋아서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동료)가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같이 하게 됐죠.

- 참여자5 -

참여자들은 교화 현장에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무로서 교화 현장이 되는 일선 교당에 직접 오는 청소년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느끼며 교화 활동을 교당으로만 한정 짓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청소년을 만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던 중 인성교육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신뢰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주는 든든함

(프로그램과 지침서가 없으면) 개인 역량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잘하든 못하든 연습을 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힘인 것 같아요. <중략>

14) 원불교에서 법회와 의식 등을 진행하는 공간 및 장소를 교당(敎堂)이라 칭한다.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인 일원상을 봉안하고 있다.

우리가 외부에 나갈 때 공정성 있고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부분이 이렇게 회기별로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지도자용 교재 매뉴얼 교재도 있었고, 또 프로그램이 딱 12주차가 나오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못하면 제 역량이 부족한 거지 이것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참여자2 -

그리고 진짜 가장 좋았어요. 책(지도자 지침서, 학생용 워크북)이랑 PPT, 영상, 자료화면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뭐... - 참여자5 -

학교에서는 (원불교 교무가 가니까) 처음에는 종교성을 떠나서 생각했는데 종교라는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라포 관계를 금방 형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중략〉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후원받는 프로그램이다 하니 공신력이 있는데다가... - 참여자1 -

처음 시작할 때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진짜 그거 소개해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교당의 교무이지 이런 강의를 몇 십 년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우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일단 거기에서 진짜 아이들은 많이 인정을 해 주고 들어가더라고요.

- 참여자5 -

참여자들은 종교인으로서 과거에는 개인적인 관심과 역량으로 방과 후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을 만나왔다. 교립학교가 아닌 이상 공교육 현장에서 종교성을 드러내는 것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인성교육 ‘심심풀이 M3’ 활동은 타당하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지침서에 의하여 실행하는 전문강사라는 공인된 자격이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게다가 교육에 필요한 진행 지침서와 학생용 워크북 및 매회기 필요한 PPT와 영상까지 제작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과 어려움 없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다.

3) 지도자 연수를 통해 인성교육 강사로 훈련됨

처음 (기초) 연수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연구진이 직접) 만들어진 의도,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 포인트를 짚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이런 것을 강조를 해야 되고 어떤 의도로 인성 8덕목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중략〉 연수가 바탕이 되고 워크북과 매뉴얼이 바탕이 되고 또 선행하신 분의 어떤 노하우가 전달되어서 이것이다.

- 참여자5 -

(보수교육 때) 그때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 (인성교육) 경험자여가지고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 참여자 5-

한번 해서는 하여간 좀 (부족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성교육 수업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연수를) 들을 때 또 다르게 들리니까. 내가 수업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생기고 (다시 연수를) 받으니까 그걸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적게 되고 그런 기억이 나요. - 참여자1 -

참여자들은 청소년 인성교육을 하기에 앞서 강사가 되기 위한 기초연수를 받았다. 기초연수에서 인성교육 8덕목을 이해하고, 인성교육의 목적과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 매회기를 직접 경험하였다. 기초연수 후에는 보수교육에서 심화된 교육을 받음으로써 각 회기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워크숍에서 강사 활동을 하는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해결해가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단계적인 지도자 연수는 참여자들에게 표준화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며 인성교육 활동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다만, 교당의 업무가 주가 되는 교화 현장에서 연수에 참여하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개인적인 어려움을 갖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2. 청소년을 만난 나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나: 인성교육에서 만난 청소년

1) 청소년을 새롭게 다시 만남

‘내가 참 청소년들을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저는 이 수업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내가 아이들을 모르는데 아이들을 대하고 뭔가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 지도를 하고 있었다는 게 되게 무서웠고, ‘너무 (청소년을)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좀 느꼈어요. 〈중략〉 아이들의 어떤 아픔이나 혹은 그런 그늘진 부분들을 저도 배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프레임 안에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려고 했고 알려주

려고 했던 부분이 수업하면서 그런 게 저도 좀 많이 보이고 깨지는 것 같았어요.

- 참여자2 -

애네들이 느끼는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 박힌 화난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는 학업 스트레스, 외모에 대한 것도 있고 되게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화난 것만 돌려라 하는 아주 저차원적인 만큼만 생각하고 이걸 하면서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인식하는 게 다 마음공부'구나 그런 기준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 참여자4 -

첫 시간에 저는 그 명단을 미리 받아서 이름을 먼저 외우고 가서 첫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막 외워요. 그렇게 외워가지고는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첫 시간에 다 이름을, 때때로 쉬는 시간이라든지 수업할 때라든지 딱 (불러주면) 해 주면 그 첫 시간에 라포가 형성이 되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하고 딱 (라포) 형성이 되면서 도와주는 게 딱 확보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첫 시간(을 진행해요), 이제 (각자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해주고 따뜻하게 시선을 가져주면서 '아무개야,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찬찬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구석구석 살펴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운으로 느끼는 것 같아. <중략> 그래서 (청소년들이) 의미 지어지는 존재로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 참여자1 -

참여자들은 늘 청소년을 만나고 있었기에 청소년을 익숙하게 여겼다. 그러나 인성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만나는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자신의 세계 안에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청소년을 다 알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쉬이 판단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자신이 생각하는 청소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청소년 모습을 존중하고 그 소중함을 전달하고자 바램으로 정성을 다한다.

2) 청소년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함

(1회기에서) 소통하면서 빙고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집단원들끼리 서로) 싸인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쪽 보니까 그 친구도 자해를 계속 하는 아이였고, 그때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그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다가 나중에 회기

가 진행이 되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자해하는 아이였고 수업 시작한 이후로는 자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수업을 하는데 듣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무서웠어요, 사실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다시 이렇게 (내가 했던 얘기를) 재생을 하는데 약간 소름 돋았어요, 사실은. 내가 했던 말들을 많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깨달았죠. - 참여자5 -

그때는 여고생이다 보니까 냉랭하니까 ‘진짜 이거 재미없다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반응 없던 녀석이 와가지고 “이 프로그램 그거 있는데 진짜 재미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는 두 번째 문열이에 이 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는 후배들한테 “이 수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재미있는 부분이니깐 정말 잘 했다.” 이렇게 하고 또 격려를 해 주는 친구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우리가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개네들은 재미있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그런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좀 진짜. - 참여자1 -

인성교육 해보면서 하는 게 제가 교육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말씀처럼 공감하는 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게 도와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인성 덕목도 많지만 저는 어떻게든 아이들이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그게 인성의 덕목으로 발현이 되니까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수업할 때 “너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라고 한번 물어본 적 있는데, 스물다섯 중에 네 명만 손들었어요. 나머지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제가 이거 “12차시 우리가 많이 만나지만 그거 하나만 네가 확인하면 나는 된다, 나는 그걸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네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 프로그램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발견해 주는 거구나’ 생각하고는 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 참여자4 -

눈빛이요, 질문하는 것. 좀 듣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질문들.

- 참여자3 -

어떤 아이들을 대할 때 저는 항상 교당에 오거나 제 성향이 그냥 이 안에 있으

면 그게 저는 안전한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색깔의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적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부는 다양성을 그대로 살려주는 게 우리 공부이고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성의 마음을 건드려주지 못하고 일관적으로 가게끔 하는 무의식의 제가 그게 좀 있어서 가르치고 지시하고 지도하는 게 어떤 이렇게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대하고 교당 아이가 아닌 학교 아이들, 여러 색깔의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당 아이들을 대할 때 제 마음이 예전에는 그.. 미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밉고 싫고 귀찮은 마음이 내가 힘들면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을 그냥 안아주게 되더라고, 아이들의 아픔을. 그리고 다양성이 진짜 이곳(학교)에서만은, 교당에서만은, 혹은 나와 만나는 친구들이 ‘그 색깔을 더 화려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많이 좀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대하고 교화해서도 그게 힘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 참여자2 -

참여자들이 경험한 청소년은 대체로 무심하고 때론 거칠다. 애써 준비한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반응이 없어 속으로 실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심해 보이던 청소년이 사실은 모두 듣고 있고 보고 있었으며, 어느 순간 무장해제되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에 충격과 감동을 받는다. 청소년들은 소리 없이 참여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으며 보고 있었다. 이를 목격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청소년의 가치와 소중함을 전달하고자 애쓰게 된다.

3.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나는 어떤 경험을 하였나: 종교인이자 인성교육 강사

1) ‘교무님’이 아닌 인성교육 강사라는 새로운 도전

저는 이 심심풀이를 통해서 내가 원불교를 모르고 내가 모르는 애들을 만나려 간다라는 것이 되게 설레면서 좀 두려웠거든요. 두렵고 법회 보는 언어와 저의 모습과, 아까 말씀처럼 강단에 섰을 때 어떤 교수법을 이용해서 하는 게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다듬어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제 모습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1, 2년 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프로그램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너무 억세게 다가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후에 매뉴얼 나왔을 때 그리고 동영상도 좀 바뀌었을 때에 조금 더 자신감

도 생기고 ‘이거는 계속 해 봐야 내가 좀 (능숙해지고) 능이 나는 거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해 보는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부분이 좀 아쉽고 부족한 가도 고민해야 되겠구나.’하면서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 참여자2 -

진짜 용어나 객관적으로 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힘들기도 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우리는 그냥 쪽 이어지니까 부족하면 다음에 채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나하나를 딱 매듭을 지어서 전체가 프로그램이 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뚫어지게 전달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려우면서도 그런 것들이, 그런 노력이 우리들도,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 참여자3 -

출발부터가 교무님이 아니라 인성(교육) 선생님이라고.. 〈중략〉 교무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활동을 하면, 사회법의 매너, 사회에서 어필할 수 있는 매너를 우리만의 문화가 전부인 양 의욕을 가지고 나가면 사회에서는 반기지 않는 쪽으로 의욕을 발휘하다 보면 거부를 당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외부의 학교로 나가면서 알게 된 게 사회적인 어필할 수 있는 매너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리고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정제되고, - 참여자1 -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하게 교도를 만나고 교화 활동을 해오던 참여자들은 일반 학교라는 낯선 공간에서 일반 학생이라는 대상을 만나기에 앞서 기대 뿐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설교와 마음공부에는 능숙하다고 자부하면서도 인성교육을 위한 준비에는 긴장감이 땀을 흘렸다. 인성교육 시간에 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 교무님이 아니다. 상호 이해와 익숙함이라는 보호가 배제된 관계에서 오직 교사와 학생으로 만나는 것은 분명 새로운 도전이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인성교육 선생님’으로서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어휘를 사용하면서 전문적인 실력과 태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실행할 것을 염두에 잊지 않았다.

2) 종교인으로서 신선한 자극과 활력이 되는 인성교육 강사 활동

대(對)사회 불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길이 열린 것 같아요. 안에서만, 원불교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다가 정말 외부 세계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한 울렁증도 있고 했는데 3년이라는 꾸준한 활동 속에서 나중에는 프로그램을 안 보고 (강사인) 저를 보더라고요. 나중에 학교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선생님이

니까 우리가 부릅니다”라고 하는 확신까지도 이렇게 듣(게 되)고.. - 참여자 1-

막상 교당에 있었을 때 우리 청소년 교화 담당 교무님들이 토, 일 빼고는 뭐 하는 일이 있는가 했을 때에는 특별히 자기계발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점점 우물에 갇히는 우리들의 삶이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안 나가죠. 내가 어딘가에 열중을 하고 에너지를 쏟는 데가 있어야 다시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늘 그냥 쓰지 않고 고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 참여자2 -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자신이?) 예. 자신이 많이 배우고, 왜냐하면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교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서, 특히 뭐 어떤 설교를 막 애들하고 있어서 즉석으로 해야 할 때에는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성교육) 부분들은 사실은 막 흐름을 짚 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막 매뉴얼 보면서 “(학생들이게) 자, 오늘은 뭐 하니?” 이렇게 하면 끝나요, 거기서 이제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멘트 하나하나 연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진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스스로)가 성장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 - 참여자5 -

일단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하나 생겨서 자유를 얻었고, 아이들 만나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성장이 되는 느낌. 이제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몇 년 수업을 하니까 어느 곳에 어떤 청소년이 와도 두렵거나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애랑 뭐든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들어요. - 참여자 4-

교화의 어떤 모습, 형태 그리고 강사로서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봐서 굉장히 좋았던 경우였어요. - 참여자5 -

참여자들은 수행과 신앙을 통하여 끊임없는 자기 성장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스스로 발전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강사 역할의 숙련도가 향상됨과 동시에 청소년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에서도 이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참여자들이 종교인이 아닌 인성교육 강사라는 정체성으로 청소년을 만나는 것은 처음에는 낯설고 다소 어렵기도 하였으나 스스로도 성장하는 가치 있고 기분 좋은 도전이었노라 회고한다.

3)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소명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가르치러 갈 때. 이런 것 (프로그램)들 워크북 가져가고 PPT 가져가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떤 저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수업을 안 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정의대로 살고 남을 배려해 주고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품어줘요, 그냥. 그런 인간적인 냄새들을 많이 풍기면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물어 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시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간에 애들이 힘든 얘기도 하고 자살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업도 철저히 준비하지만 어떤 아이들에게 보여 지는 그것을 저는 굉장히 그래도 말투 하나도 수업시간에 존댓말 써가면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 참여자5 -

잘 아실 거예요. 수업 분위기가 (인성교육에) 수업 부적응 아이들을 막 보내요. 그냥 어차피 수업 (시간에) 있으나 없으나 한 애들을 그냥 따로 시간 빼서 상담 선생님이 관리해야 되는 프로그램 대신에 (인성교육) 무료로 해준다고 하고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기본 정서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산만하고, 그 아이들 하고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해가도 이게 가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안 오니까 한 15분, 20분 놀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수업에 방해가 되도 이 아이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도는 안 나가지만 이 아이의 만남이 더 뭐랄까, 질적으로 깊이 만나지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경험이 플러스되니까 수업에서 전해줄 것이 어떤 이론상으로 정해진 학습도 있지만 아이들과 만남도 중요하구나 하면서 그렇게 해준 아이들은 수업 태도도 달라지고, 그게 경험이 되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가면 물론 준비는 해가지만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고 아이들과 대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저 내면도 이제 많이 보고 같이 성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참여자4 -

‘우리가 12회기로 만나서 만나지만 실상은 인성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고 내면화 하는 것이고 내가 해봐서 내 거 삼는 거야, 그 향기가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참여자5) 교무님 같은 경우도 이게 보여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 인성교육 부분으로 보여주는 것, 그 모든 배려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도 하지만 보

여주는 쪽으로 많이 주력을 했는데, 그게 원불교 교무님들의 가장 강점인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 참여자1 -

참여자들은 인성교육 강사라는 호칭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으나, ‘강사’라는 역할에 자신을 한계 짓지 않았다. 단순히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강사에 머물지 않고, 비록 정해진 시간 동안이나마 만나는 학생들에게 삶에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다. 또한 말로 가르치는 것 보다 태도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언행과 태도로서 학생들에게 울림을 주고자 하였다.

4. 더 나은 인성교육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인성교육을 통한 소망

1) 청소년 인성교육 발전을 위한 바람

우리가 늘 청소년을 만나니까 기본적인 만남은 가능한데 여기에 다루고 있는 도구 같은 것, 기법들을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교육을 받고 직접 그냥 해 보고 해 본 경험으로 또 시도하는 거고 이런 정도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아쉬웠고요. - 참여자3 -

인성 8덕목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자기와 어떤 수업과의 어떤 그것이 일치하게 돼요, 삶이라는 것이. 마음가짐 아니면 어떤 자세. 그런데 이제 저는 만약에 수업과 어떤 이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모순이 된다고 하면 그 속에서 아이들은 많은 괴리감을 느낄 것 같아요. ‘소통이라고 말하면서 왜 저렇게 소통을 못하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과연 신뢰를 할까? 그리고 공신력 있는 어떤 이런 거? 자격?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실망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가장 높게 나오는 어떤 평가 중에서도 어떤 강사의 자질이잖아요. 그런 교무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수업을 잘하고 나가도 이게 강사의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저는 수업 전에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컨트롤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 참여자5 -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치를 발현해 주는 거고,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자아존중감을 살려주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교화도 저는 깨어지더라고요, 이 자아존중감은 다른 말로 불성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청소년 교화의 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아존중감 향상이다. - 참여자4 -

스스로 강사가 자기의 인격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만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아까 말한 관심과 또 자아존중감이나 이런 인성, 인격을 향상시켜 주려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도 노력하고 만나는 대상들에게도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 참여자4 -

결국 보면 경계 당했을 때 내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저는 그냥 좀 단어로 한다면 좀 어렵긴 하지만 영성이 아닌가. 무엇인가를 다 갖추고 있지만 과연 내가 내 안에서의 정화능력이나 외부로부터 나와지는 그런 경계 속에서의 정화능력이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보고 있거든요. 아, 저 교무님 수업을 들으면, 예를 들어 그 교무님이 어떠한 강사로서 어떤 그런 건 좀 부족해도 마음이 편하고 좋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저분과 같이 있으면 내 가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이 이러한 수업을 조금 그래도 좀 갖춰진 교무님이나 사람들이 이 수업을 할 때 그 효과가 더 배가 되어 나오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미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수업에 나오는 인성 8덕목이나 인성이 그분을 통해 아이들은 느끼고 거기에서 같이 공감대를 느끼면서 정화가 되니까 아이들이 위안을 삼고 휴식을 하고 힐링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런 수업을 꾸려가고 해갈 때 이게 더 크게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 참여자2 -

참여자들은 연수를 통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기마다 느끼는 난이도가 다소 상이하였다. 특히 마음극 회기 경우, 숙련된 진행과 회기 목표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에서 각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편,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하는 강사의 자질과 태도임을 힘주어 말했다. 스스로가 성숙한 인성을 지닌 개인으로서 청소년을 만나면서 각각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도록 돕는 것이 불성(佛性)을 깨닫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를 실천하기에 노력한다고 하였다.

2)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역할 갈등과 교화 인식의 확장

나의 어떤 움직임은, 나의 그냥 움직임은 어떤 제한이 없는 사람인데 내 현실에서는 제한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냥 제한을 두고 사니까 이게 주와 부가 나뉘지는구나. 〈중략〉 의식이나 내 역할에 있어서는 주(主), 부(副)는 없지만 내가 그 공간, 공간으로 인하여 나뉘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를 나갈 때도 이게 주가 아니구나. 공간적인 걸 갖고 논하기 때문에 교당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해도 주가 되는 곳이지만 내가 교당을 아닌 다른 곳을 나갈 때는 아, 어른들이나 내 스스로도 부차적인 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니까, 만약에 이 공간적으로 나에게도 그게 없다면 나갈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교무로서 나가는 것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갈등이 있고 설득을 해야 하는 게 있고, 나의 영역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그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있구나 그냥 그 생각이 들었네요. - 참여자2 -

특히나 제가 이 (인성교육) 수업을 나가니까 대다수 하는 질문들이 “그러면 그 애들 교당에 와? 데려와?” 하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화를 ‘어떤 특정한 교당의 장소에 애들이 와서 교도가 되는 것이 교화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중략〉 어떤 공간에 한정 짓지 않고 어떤 그냥 이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교화니까 저는 이 일환으로 진짜 이 심심풀이를 접근을 했어요. 저도 교화가 됐고, 뭐 같이,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같이 나갔던 교무하고도 서로 교화가 되면서 서로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고 좋고 이 자체가. 그래서 교화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체가 저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와 닿는 부분이었어요. - 참여자5 -

주어진 역할에서 (인성교육 강사가) 부(副)직이지 개인이 부직이라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주어진 역할에서 역할로 봤을 때 이 심심풀이를 (외부에서) 부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인성교육 강사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제한인거지, 내용적으로 (스스로는) 나누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참여자4 -

저희가 하는 교화에 대한 다른 형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뭐 교화가 교당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법회를 보는 것이 교화의 어떤 모습인가. 아니면 그냥 ‘어떤 정신이, 원불교 정신이 어떤 다른 형태로써 그냥, 용어 이런 것도 전혀 사

용하지 않지만 전달하는 것이 원불교의 교법(을 담고 있고), 전달되는 것이 교화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뉘라고 해야지. 교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한번 바뀌어버리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교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교당이란 무엇일까? 교당은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당만 교당일까? 아니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 모든 곳이 교당일까?'라는 어떤 확장 그런 생각도 들고요. - 참여자5 -

인터뷰 도중 참여자들은 때때로 인성교육 강사 활동이 '주(主)'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여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참여자들은 종교인으로서 소속된 현장에서의 교화가 최우선 순위에 있으므로, 강사 활동을 지속하는 데 시간과 공간의 현실적인 제약을 경험하였다. 처한 장소에서 처한 일을 해내는 것이 모두 주(主)라 여기면서도 직접 교화에 대한 암묵적인 부담 또한 존재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공간과 대상의 한계를 짓지 않고 교법으로 사람과 세상을 만나는 모든 일이 교화라는 인식의 확장을 통하여 보다 신념을 가지고 인성교육에 임할 수 있었다.

4) 종교인으로서 교화에 대한 고민과 염원

교화도 있고, 어떤 개인의 수행이나 우리의 공부도 같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화도 이런 체계화가 되어야 되고, 어떤 동질성도 있어야 되고, 어떤 단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개인의 어떤 실력? 이게 좀 다 퍼즐이 맞아야 변화가 나올 것 같아서,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게 조금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저 혼자 막 '바뀌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공허한 외침이잖아요. <중략> 대안이 이쪽 (인성교육) 밖에 없어요. 청소년 교화의 대안이 이런 쪽으로밖에 없어요. 이제 교당에 앉아 있어도 (청소년이) 오지도 않고. - 참여자4 -

그런데 그런 게 아이들의 입에서 교무님이라거나 혹은 우리들의 모습에서, 혹은 우리들의 언어에서 '아, 저러한 가르침이 있고 저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하면서 같이 교류가 되고 공감이 되면 그 아이의 인생에 어떠한 점을 하나 우리가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좀 많이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참여자2 -

법회만이 교화가 아니고 이제 나가야 된다고 인식은 했음에도 현장 교무의 인식

의 전환이 하나의 가장 큰 장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는 작업을 하면서 이 교육도 해야 되지, 미온적이고 진짜 이게 형식의 이게 진짜 새로운 모형을 꿈꾸지만 새로운 모형이 있어도 불구하고 기존에 했던 흐름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 참여자1 -

막상 오니까 제가 놓치던 생각들도 참 많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많이 희망적으로 얻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런 프로그램은 그냥 같이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더 확장된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나누는 이런 좋은 소득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우리라도, 하고 있는 교무님들이라도 서로 나눠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후배 교무님들, 예를 들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라서 못하는 교무님들 계시고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교무님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교무님이 계신다면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그냥 지금 기회가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내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 참여자2 -

참여자들은 교회 현장에서 청소년을 전담하는 종교인으로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청소년 교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심심풀이 M3'와 같은 인성교육으로 더 많은 청소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교도가 되어야만 직접 교화가 되었다고 여기는 여전한 일부의 인식은 참여자들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비록 인성교육을 만난 청소년이 특정 종교의 교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소년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조금이나마 세상을 보는 시선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또한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강사의 경험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는 흐름에서 종교계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종교인의 인성교육 강사 경험을 탐색하고 그 의미

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4개의 주제와 11개의 범주 및 29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인성교육 강사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과의 만남에 대한 갈증에서 시작되었다. 청소년과의 만남을 앞두고 ‘심심풀이 M3’ 프로그램의 타당성이 이들에게 자신감을 주었으며 체계적인 프로그램 연수 등을 통해 인성교육 전문강사로서 준비된 모습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을 만나서 경험하게 된 점을 보면, 피상적으로 느꼈던 청소년들의 아픔과 욕구 및 감정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경험을 살펴보면, 종교인이 아닌 인성교육 강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도전과 성장의 계기가 되었으며, 종교인으로서 신성한 자극과 활력을 얻게 되었고 소명과 자부심이 한층 커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더 나은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강사의 개인 차원에서는 인성교육 강사로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과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일깨워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환경적으로는 종교의 교화와 직접 관련 없는 외부 활동으로 여겨지는 인성교육에 대한 종교 내부의 인식이나 지원이 부족한 점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과정에서 종교의 교화자와 인성교육 강사 사이의 고뇌와 갈등이 노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교인의 인성교육 현장 참여가 갖는 중요한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성교육의 교육 주체가 확장된 점이다. 즉 인성교육의 교육 주체가 교육계에서 종교계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인성교육의 교육 내용이 다양화된 점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종교색이 탈색되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종교 고유의 보편적 가치가 반영된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의 교육 내용이 일면 심화되고, 일면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이 과정을 통해 종교 교육의 교육 범위가 확장된 점이다. 기존의 종교 교육이 대체로 교립학교 자체 의무 교육이나 대학의 교양수업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인성교육의 한 부분을 종교 교육이 담당함으로써 종교 교육의 교육 범위가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교립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에 일부나마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에 참여하게 된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된 점이다. 다년간 종교적 수련이나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인격도야와 인성 함양을 진행한 종교인이 종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교육현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종교인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청소년들의 탈(脫) 종교화 현상의 심화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교계의 고유한 가르침이 한정된 종교 내 시설이나 교립학교의 종교 교육 차원에서 벗어나 종교의 울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 계층, 특히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종교계의 인성교육 활동은 지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교계 인성교육 강사는 인성교육에 대한 기본 지식과 교육 방법에 대한 숙지와 더불어 여러 종교에 대한 공감적 태도와 정보를 충분히 가져야 하며¹⁵⁾, 인성교육은 ‘종교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종교적’ 교육¹⁶⁾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특정 종단의 교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가 지향하는 바와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바의 본질과 일치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순수한 고민과 발전이 지속되어야 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인성교육이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과도한 입시경쟁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가족 및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이 전반적으로 해체되고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제도 안으로 인성교육을 가져왔다. 그러나 「인성교육진흥법」 이후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노력에도 우수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며, 명칭에 ‘인성’이 포함된 부실한 민간 자격 난립에 대한 고민과 조치가 강구¹⁷⁾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강사가 절실히 요청된다. 따라서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뿐 아니라 우수한 강사를 양성하고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청소년 인성교육 지도자 양성 및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종교계 인성교육과 관련한 질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종교인으로서의 인성교육 경험을 의미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가 ‘심심풀이 M3’ 프로그램과 이를 수행하는 강사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개선 및 지도자 교육의 보완에 중요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의 지속적인 확산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5) 성혜영·박범석, 「인성교육법 제정의 종교교육적 의미-종교와 인성교육의 관계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49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14쪽.

16) 위의 글, 17쪽.

17)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자료집」, 『교육부(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30쪽, 73쪽.

참고문헌

- 박세훈 · 장진영 · 고시용, 「원불교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心心풀이 M3(Meta-Mind Meditation)’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50,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 박한나 · 주은선, 「여성상담자의 자기성찰을 위한 포커싱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주변정리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1), 한국여성심리학회, 2019, 1-19.
- 성해영 · 박범석, 「인성교육법 제정의 종교교육적 의미-종교와 인성교육의 관계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49,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1-22.
- 장진영 · 박세훈 · 고시용, 「마음공부의 사회적 확산 과정-심심풀이 M3(Meta-Mind Meditation)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2,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 장서연 · 최선남, 「아동미술치료사의 치료과정 경험연구」, 『미술치료연구』 21, 한국미술치료학회, 2014, 623-642.
- Morgan, D. L.,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Vol. 1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6.
- Krueger & Casey, 『포커스그룹: 응용조사 실행방법』, 서울: 명인문화사, 2014
-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 신규제정 2015.01.20. 개정 2016.12.20.)
-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403호 신규제정 2015.07.20.)
- 「종교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보도자료(2012. 2.23.).
-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편, 제10회 마음인문학 국제학술대회 자료집(2019. 11).

원고접수일: 2019년 11월 21일 심사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7일

연구자소개: 이은수

- ① 전공: 아동심리치료 / 소속과 직위: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교수
- ② 관심영역: 아동·청소년 상담, 부모 상담 및 교육, 부모-자녀 관계, 질적연구, 인성교육
- ③ 주요논저: 「아동상담자의 부모-자녀 관계치료(CPRT) 체험연구: 상담자 발달을 중심으로」, 「부모-자녀 관계문제를 가진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아동중심 놀이치료(CCPT)와 부모-자녀 관계치료(CPRT) 개입으로」, 『놀이의 치료적 힘』(공역)
- ④ E-mail: 2eunsu@gmail.com

연구자소개: 장진영

- ① 전공: 불교학 / 소속과 직위: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교수
- ② 관심영역: 불교, 한국종교, 원불교, 마음공부, 인성교육
- ③ 주요논저: 『불교의 마음치유』, 『원불교 마음공부의 체계 연구』, 『원불교 마음공부의 원리와 범위』, 『마음인문학과 인성교육』(공저), 『마음챙김, 미국을 깨우다』(공역)
- ④ E-mail: jinsuwon@wku.ac.kr

연구자소개: 고시용

- ① 전공: 원불교학 / 소속과 직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한국종교, 원불교교육, 원불교경전해석, 마음공부, 인성교육
 - ③ 주요논저: 『클릭 원불교』, 『종교(원불교)』, 『한국 종교의 확산전략』, 『원불교 교리 성립사』
 - ④ E-mail: kwgksy@wku.ac.kr
-

Abstract

A Qualitative Research of the Experience of the Trainer on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 Focused on the 'SimSimPuli M3 (Meta-Mind Meditation)'

Lee, Eunsu · Jang, Jinyoung · Ko, Shiyong
WonKwang University

In this study,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instructor who performed 'SimSim-Puri M3(Meta-Mind Meditation)', a youth character education program based on mind practice.

The effectiveness and meaning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is not only important for the purpose and purpose of development, but also the experience of the parties who actually performed the program. As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and role of instructors in the program and the need for qualitative education have been repeatedly emphasized in the previous research, we have listened directly to the experience of the instructors in the program and how the stories inside them are connected with the youth. For this purpose,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collected and the focused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n the subjects of youth and character education. As a result of categorizing the data, 4 themes, 11 categories, and 29 subcategories were presented, and the results were presented and interpre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materials necessary for the training of youth character education instructors and leaders, and for the development of leadership capacity for character education.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y attempted qualitative research on religious character education to reveal the meaning of character education as a religious pers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continuous spread of character education for youth by providing empirical data on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and instructors who perform them.

Key words: character education, mind practice, SimSim-Puri M3(Meta-Mind Meditation), character education program, religious character education